

국민 편익을 먼저 생각



孫鶴圭
보건복지부 장관

19

97년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996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국민복지기본구상』을 확정하여 복지제도의 기반 확충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여러가지 제도와 시책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의사상자에 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먼저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활개혁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소의 『지방청』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100대 다소비식품을 월별로 선정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식품안전예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암질환의 예방과 치료연구를 위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암정복추진기획단』도 발족시켰습니다.

보건복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경

하는 보건복지행정을

제질서속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한편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와 조화되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의 첨병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현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반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보건복지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신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내실있는 보건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까지 높이고 이들의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 대해 해산보호비를 지원할 것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직장에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까지 70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도 확대·지급하고, 노인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장애인복지업무의 전문화와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심의관』으로 확대·개편할 것입니다.

둘째, 또한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건강증진목표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정신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 기능을 보장하여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능력을 제고시키고 지

역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정비 보강할 것이며,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장기이식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가정간호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여 환자의 진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료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급여 기간을 작년의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진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험과의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진료비 청구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해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식품과 관련된 국내·외의 유해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입식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의 예방과 근절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속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약품과 식품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의 성장선도산업으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관계자 여러분 !

보건복지행정은 우리 국민생활 하나 하나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작은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치밀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새해에도 보건복지관계자 여러분과 보건복지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